

글로벌 정보사회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Information Society

김 대 호^{*}

Daeho Kim

요 약

이 연구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변화의 맥락에서 인터넷의 기술적 성격과 인터넷 생태계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난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루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diversified actors)들이 함께 관련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정부, 민간 기업과 함께 인터넷 거버넌스의 3각 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국제기구의 주체가 정부 간 국제기구로부터 민간 중심의 국제 질서로 변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ICT의 발전을 반영하여 ICANN과 같은 민간 국제기구 모델이 등장하고,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라는 새로운 체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거버넌스는 국제 정보사회 거버넌스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 주제어 : 인터넷 거버넌스, 멀티스테이크홀더모델,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글로벌정보사회거버넌스

ABSTRACT

Internet has changed global information society in many ways. Among others, combination of internet's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ternet ecosystem has altered global information governance. This paper argues that internet governance is rooted in the multistakeholder model in which diversified actors including government,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are connected closely. Players have increased a lot in the global information governance. In particular, civil society have mor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rena, power shift from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civi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increased. ICANN and IGF(Internet Governance Forum) have played critical roles in internet governance. Internet governance shows new phenomena of global information governance.

☞ keyword : internet governance, multistakeholder model, internet governance forum, global information governance

1. 들어가는 말

2015년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를 국제사회로 이관하게 되고,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10주년을 맞아 정보사회 아젠다를 재평가하는 일정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2014년 3월 인터넷 거버넌스(인터넷 관리)를 글로벌한 이해관계자들이 만든 기구로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주소 관리는 줄곧

미국에서 맡아왔다. 1969년에 인터넷 주소 관리의 권한을 미국 국방부가 가졌다가, 1988년 미국의 민간 비영리법인 IANA로 이전하고, 다시 1998년 미국 상무부를 거쳐 현재의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으로 넘어온 여정까지 모두 미국 사실상 관할 하에 두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인터넷 주소관리 권한을 ICANN에서 다른 기구로 2015년 10월에 넘긴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2005년 WSIS 튀니스 선언에서는 10년이 지난 후에 WSIS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로 밝혔고, 바로 2015년의 시한이 다가왔다. 튀니스 선언이 공표된 지 10년 동안 유엔(UN), 유네스코(UNESCO),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WSIS의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해 왔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는 인터넷 거버넌스가 놓여있다. 인터넷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거버넌스 이

¹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402-751, KOREA

^{*} Corresponding author (jinseon@inha.ac.kr)

[Received 3 March 2015, Reviewed 3 March 2015(R2 23 June 2015), Accepted 10 July 2015]

☆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슈가 WSIS와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 의제는 글로벌 정보사회, 더 나아가 글로벌 정보사회의 맥락에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그동안 정보 분야는 국경을 넘어서 확대되어 왔다. 글로벌 정보사회가 형성되고, 그와 관련한 거버넌스도 발달해 왔다.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면서 참여자(player)들이 증가하고 이들 간에 벌어지는 관계와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일방향적이고 단선적인 글로벌 정보사회에서 벗어나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와 네트워크로 확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글로벌 확산을 증폭시킨 중요한 요인이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시작은 1960년대 미국 국방부의 ARPA(Advanced Projects Research Administration)에서 데이터 통신을 위해 시작되어 ARPANET로 알려진 것이었다. 인터넷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정부의 주요 부처와 기구¹⁾, 세계의 연구기관, 대학을 연결하는 것으로 발전하여 짧은 시간에 글로벌한 성격을 띠게 된다. 인터넷과 정보사회, 글로벌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인터넷은 글로벌 정보사회의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장본인이다. 인터넷은 그 성격상 글로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글로벌 정보사회의 주요 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자연스럽게 인터넷은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표적인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기술적 성격과 인터넷 생태계의 특성이 조합되어 글로벌 정보사회 거버넌스를 크게 변화시켰다. 이 연구는 글로벌 정보사회의 변화의 맥락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글로벌 정보사회 거버넌스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한 거버넌스는 정보 흐름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각종 정보와 콘텐츠 등이 국경을 넘어 생산과 소비가 보편화되어 자연스럽게 정보의 글로벌화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여기에 세계화의 진전은 국제 정치적인 틀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정보 거버넌스는 글로벌 정보에 대한 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함께 관련되어 있다.

먼저 글로벌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살펴보자.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 나이트(Knight)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사회정치적인 것으로부터 군사안보 문제에 이르는 개별국가들의 영역을 초월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는 무수한 초국가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적, 지역적, 지방적 차원에서의 합의를 조율하는 노력으로 국가 이외의 다양한 사회세력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1] 종래 글로벌 정치에서는 정부가 주요 행위자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기업과 산업의 국제화가 증대되고, 인력과 제도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서 참여자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글로벌화의 증진과 함께 관련 기구와 조직의 역할도 증대되었다. 그러한 기구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유럽연합(European Unio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구들은 개별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 개별 국가의 정책을 뒤엎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국제금융위기에 IMF는 해당 당사국들의 금융 자유화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국제 거버넌스(international governance)의 정의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제 거버넌스는 기존처럼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제를 말한다. 반면에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제 기구, 초국적 기업들과 NGO의 참여와 협력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1]

글로벌 거버넌스의 특징을 딩위스와 패트버그(Dingwerth and Pattberg)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시대에는 지역·국가·권역·지구적 과정이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둘째, 비정부기구, 초국적 기업, 과학자 및 전문가 집단들이 글로벌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개별 국민 정부에 못지않은 중요성을 가진다. 셋째, 글로벌 시대에 새로운 권위 주체가 주권 국가와 무관하게 형성될 수 있고, 초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기구와 같은 민간의 영향력을 갖는 권위가 등장한다. 넷째, 글로벌 거버넌스는 개별 정부 혹은 세계 제국과 같은 단일한 중앙 집중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형태를 띤다.[2]

즉 글로벌 시대에 거버넌스는 초국적, 비정부, 민간 영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특징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대표하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된다. 인터넷이 거버

1)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ASA(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Administration)

넌스를 필요로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기술 표준 때문이다. 인터넷의 운용에 네트워크 프로토콜, 데이터 포맷 등의 표준이 필요하다. 둘째, IP주소 등의 자원 할당의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 범죄, 저작권, 스팸, 소비자 보호, 보안 등에 대한 공공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3]

그러므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누가 관리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싼 문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가 제기되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초기에는 “기술표준, 자원할당, 글로벌한 상호연결 행위에 관계된 사람들의 행동에 관한 정책, 규칙,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해 연결된 네트워크 소유자, 관리자, 개발자, 사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의되었다. 그러던 것이 인터넷의 영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확대되어 가면서 주소자원의 할당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보편적 접근 등 인권의 문제로 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요청되었고, 최근에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구조의 총체적 관리 시스템 또는 지배구조”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4]

따라서 글로벌 정보사회는 복잡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어떠한 단일한 행위자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할만한 지식과 정보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복잡함이란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말한다. 다양함은 국가와 같이 영향력 있는 단일한 존재보다 서로 동등한 행위자들이 더욱 많이 관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는 역동성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 것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이다.

3.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 SIS)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유엔이 주관한 것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혁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해소를 목표로 이루어졌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국가 간의 정보 격차가 나타나게 되어 지구적 차원에서 이를 논의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즉 이전의 정보 불균형이 정보사회, 정보화의 맥락에서 재구성되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WSIS는 맥브라이드 위원회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보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여 주체와 입장이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이전의 맥브라이드 위원회가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던데 비해, WSIS는 정부, 국가 간 조직, 민간영역,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9] 또한 맥브라이드 위원회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유네스코에서 주관한 데 비해, WSIS는 정보통신이 주도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유엔의 주도 하에 정보통신을 관장하는 ITU가 주관한 것이다. 또한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주요 의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만들어내는 목표를 표명한 점이 크게 다르다.

유엔에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디지털 혁명을 가져오고 모든 측면에서 현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ICT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ICT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는 계층의 차별에서 오는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5]

이에 따라 2001년 유엔 총회 결의안 56/183 을 통해 이러한 정보사회의 도전과 기회를 논의할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의 개최를 승인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정부 이외에도 시민사회나 민간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이 참여하는 멀티스тей크홀더 (multi-stakeholder) 접근을 강조한 점이다. 유엔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ITU에 WSIS를 주관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결과 2003년과 2005년에 각각 제네바와 튀니스에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특히 2005년 튀니스 WSIS에서 튀니스 아젠다를 선언하여 인터넷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WSIS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멀티스тей크홀더 포럼인 인터넷거버넌스포럼 (IGF)을 창설한 것이다. 이는 기존에 인터넷 주소관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글로벌 기구로 존재해 왔던 ICANN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인터넷이 글로벌 공론장으로서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개방,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부, 민간영역, 시민사회, 국제기구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멀티스тей크홀더 방안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WSIS는 이전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와 달리 국내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

4. 인터넷 거버넌스의 영향

4.1.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

인터넷 거버넌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의 하나는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에 있다. 2005년 11월 튀니스 WSIS 회의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정보사회의 장에 모든 행위 참여자들이 참여할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서, 글로벌 거버넌스 결정에서 전환점으로 인정될만하다.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1648년 30년 전쟁을 종식 시킨 ‘웨스트팔리아’조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왔다.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유럽 대륙의 마지막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을 종식 시킨 회의로서, 그 이전까지의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국민 국가로 주권을 이전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대표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가 내에서는 국가가 통치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여 정부가 국제 협상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확립한 것이다. [6] 웨스트팔리아 조약에서 국가의 주권은 지형학적 영토의 통제를 통해 이루어졌고, 현대의 국제 질서에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후에 국가 이외의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많은 국제 기구(정부간 기구)들이 등장하여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더 나아가 세계화를 촉진하는 기제로서 작용해 왔다. 이런 국가간 기구들은 다자주의(Multilateral system)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들이 있다.

첫째, UN과 관련 기구들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유네스코, ITU 등)

둘째, OECD, WTO 등의 글로벌 정부간 기구

셋째, 유럽연합(EU), 북미자유협정(NAFTA),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대륙, 지역 정부간 기구

넷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특정 목표를 갖는 국가간 협의체

다섯째, G8, G20 등 세계경제에 대해 이사회적인 성격

을 갖는 협의기구

여섯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협회(FIFA) 등 특정 영역에서 거버넌스 책임을 갖는 민간 국제 기구[7]

이러한 기구들은 국가의 주권을 통하지는 않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국제 거버넌스로 작동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서 웨스트팔리아 조약과 다른 글로벌 거버넌스의 예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연합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법률은 국가의 국내법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초국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 적용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들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떤 국가의 통치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할 때 경제적인 제재와 무력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한 국가간의 협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된다. 국제사법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재판할 수 있다. 물론 국제정치 역학상 그 권한의 행사는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간 다자주의의 효율성은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WSIS 의정서인 튀니스 아젠다(Tunis Agenda)에서였다. 튀니스 아젠다는 각 스테이크홀더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게 된다. 첫째,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의 정책 결정권은 국가의 주권임을 명확히 했다. 국가는 또한 국제적인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 둘째, 민간 영역은 기술과 경제적인 부문에서 인터넷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특히 인터넷의 공동체 차원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정부간 기구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국제 기구는 인터넷 관련 기술 표준과 관련 정책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8]

이렇게 튀니스 회의에서는 정부, 민간영역, 시민사회, 정부간 기구, 국제기구 등 5개의 영역을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스테이크홀더로 보았다.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은 공동의 목표와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분야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논의하여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말한다. 보통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그룹,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은 참여의 확대를 의미한다. 튀니스 선언에서도 멀티스тей크홀더

의 참여를 여러차례 강조하였다. 특히 정보사회의 목표를 인간 중심적이며, 포용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정보사회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봄으로써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기초로 보았다. [8]

모든 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커다란 장점이다. 또한 논의 과정이 생중계되고, 모든 발언이 기록되며, 모든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 왔다. 따라서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특성과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만능은 아니다. 한편으로 참여는 확대되지만, 결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생태계에는 많은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인터넷에서의 역할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를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기능 단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드나르디스(DeNardis) 등은 인터넷 거버넌스를 6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도메인 네임, IP주소, ASN(Autonomous System Number) 등 주요 인터넷 자원을 관리하는 영역, 둘째, 글로벌 상호운용을 위해 기기들이 따라야 할 공통 규칙이나 프로토콜 등 인터넷 표준 영역, 셋째,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인터넷을 형성하도록 하는 시스템인 상호접속 영역, 넷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영역, 다섯째, 가입자 프라이버시 규정이나 법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는 정보 조정 영역, 여섯째, 아키텍처 기반 저작권 영역 등이다.[9]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단일하지 않으며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주장한다.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은 민간 영역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거버넌스 모델이다. 현대 사회에서 민간 영역의 비중이 커지면서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은 확산되고 있다. OECD는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관급회의에서 멀티스тей크홀더식 방법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도 2009년 장관급회의에서 ‘멀티스тей크홀더 접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011년 G8 도빌 정상회의에서도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해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10] 이러한 사례는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이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확립되고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IGF)

2005년 튀니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

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의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인터넷 거버넌스포럼은 정부 단위의 기존 국제기구 회의와 달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 시민사회, 기술전문가, 학계, 정부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며 매년 1,500-2,500명 정도가 참가한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인터넷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발전을 위해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 이슈와 관련된 공공 정책을 논의하고, 인터넷에 대한 국제적인 공공 정책을 조정하고 어떤 기구도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조정하고, 개발 국가에서 인터넷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며,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메커니즘에 대한 스테이크홀더의 참여를 증진하며, 인터넷 거버넌스 과정에 WSIS의 원칙의 구현을 촉진하며, 인터넷의 매일 매일의 이용자에게 우려할 만한 인터넷의 오용과 남용 등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분명히 하였다. [8] 이러한 책임을 보면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단지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루는데 머물지 않고 인터넷에 관한 모든 공공 정책을 다루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좀 더 참여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과정의 일부이다. 따라서 정부도 IGF에 이해당사자의 하나로 참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GF는 정부를 비롯하여 모든 멀티스тей크홀더들의 포괄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IGF가 모든 원하는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포럼의 준비와 운영은 멀티스тей크홀더 자문그룹(Multistakeholder Advisory Group, MAG)이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MAG는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술전문가 등 이해당사자 그룹이 모두 참여하여 IGF 프로그램이나 일정 등에 대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IGF에서 다루는 아젠다는 대부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워크숍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논의가 공개된다. 따라서 IGF는 인터넷에 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기반하여 탈정부적인 새로운 글로벌 공론장의 특성을 띠고 있다. 이것은 독특한 공론장의 형태로서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을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IGF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거버넌스에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 부문들이 모여서 인터넷의 공공정책을 다루

는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비롯 IGF가 공식적인 결정권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GF가 토론의 장 이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공식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스템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공공 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공론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측면은 한계로 작용한다. IGF가 공식적인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워크샵들로 진행되어 말잔치를 나누는 장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맥을 같이 한다. 중요한 정책 논의를 위한 의사결정 제도가 애매하고,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보고서가 제출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11]

IGF는 현재로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공론장으로서의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NETMundial에서도 기존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 IGF를 5년 연장하고, 여기에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이 포럼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구현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IGF의 개방적이고 멀티스테이크홀더의 정신을 살리면서 실행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IGF가 인터넷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4.3. 시민사회의 참여

WSIS는 글로벌 정보사회 거버넌스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참여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WSIS에는 그동안의 국제회의나 국제기구와 달리 정부가 절대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과 함께 시민사회가 나란히 멀티스테이크홀더로서 글로벌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1970년대 맥브라이드 위원회 등을 비롯한 논의가 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큰 변화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어 온 것을 들 수 있다. 유엔은 글로벌한 이슈를 논의하는 장에 시민사회를 초청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지구정상회의(UNCED Earth Summit)에서는 시민사회와 민간 조직들이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안을 내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이후 UN 에이즈(AIDS) 프로그램에 시민사회를 참여시켰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각국 정부가 정부 구성원 2명, 민간 기구 1명, 노동자 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12] 1998년 코피 아난(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이제 시민사회의 참여가 회의의 성공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3]

이러한 축적이 글로벌 정보사회 거버넌스에서도 변화를 가져왔고 WSIS를 통해 구현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WSIS는 시민사회가 유엔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최초의 사례였다. 따라서 WSIS를 기점으로 글로벌 정보사회 거버넌스의 틀이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공식적인 결정은 정부간 구조에서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의 기여는 작지 않았다. 특히 유엔 창설 이래 처음으로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공식적인 구조로서 ‘시민사회국(Civil Society Bureau)’이 만들어진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글로벌한 이슈에 정부가 아닌 참여자의 대표성을 인정한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기도 한다.[14]

WSIS에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조직의 3자 구조가 확립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첫째, WSIS 사무국에 3개의 분과(Division)을 두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시민사회도 시민사회 분과를 두도록 하였다. 둘째, 시민사회가 준비 과정에서부터 마지막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전 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WSIS를 통해 시민사회는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 들어왔고,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 특히 인권, 양성 평등,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의 이슈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나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정체성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의 참여가 갖는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시민사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시민사회의 범위는 넓다. WSIS에도 ‘미디어 그룹(The Media)’, ‘문화창조자와 행동가(Creators and Active Promoters of Culture)’, ‘Networks and Campaign(네트워크와 캠페인)’, ‘도시와 지자체(Cities and Local Authorities)’ 등 불분명한 조직들이 포함되었다.[16] 더욱이 민간 기업들을 대변하는 조직인 산업계 협회도 일부 시민사회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그 정체성이 모호한 것도 문제가 된다.

둘째, ITU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보다 민간 영역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ITU는 UN 시스템에서 특이하게도 민간 기업이 ITU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기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과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것은 민간, 특히 기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시민보다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영역이 우선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는 정부와 민간 분야에 비해 정보력이나 정책 역량에서 뒤떨어진다. 따라서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시민사회가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아직도 정부나 국제기구만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투표하거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그러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몇몇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시민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 밖에서 활동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예컨대 시민사회가 WSIS 정상회의 개막식에 발표자를 추천했지만, ITU가 임의적으로 발표자를 빼거나 넣어 구성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구조는 인정받기보다는 용인되는 상황에 가깝다.[12]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점점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정보사회 거버넌스에 중요한 파트너로 등장하여 역할을 하는 것은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4.4. 국제기구의 역할 변화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에서 국제기구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국제기구의 주체가 유네스코에서 ITU로 넘어갔다. 전통적으로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영역 이슈는 유네스코에서 다루어 왔지만, ICT의 발전으로 ITU의 입장이 크게 강화되었다. 물론 유네스코 역시 인터넷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주로 포용적인 인터넷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네스코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멀티스тей크홀더 모델을 지지해 왔다. 정부나 국제기구는 ICT 정책과 규제 틀을 마련하였고,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은 ICT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민간 기업은 그것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사회는 시민과 소비자들이 그러한 발전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사회를 이끌어 왔다고 평가하였다.[15] 그것은 유네스코의 목적과 부합한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일찍부터 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시민사회가 정부, 민간 조직과 더불어 3자 구조를 확립하도록 촉구하는데 앞장섰다.

둘째, 인터넷과 ICT의 포용적인 발전을 강조하였다. ICT의 발전의 휴머니즘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교육

과 표현의 자유 이슈를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에 의한 디지털 불평등(digital divide)을 해소해야 하고, 정보와 지식이 포용적으로 공유, 분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가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포용(inclusion)은 유네스코가 인터넷과 ICT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개념일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유네스코가 기여하고 있는 분야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2013년 유네스코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다섯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첫째,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둘째,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접근, 셋째, 디지털 유산, 넷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정보와 표현의 중개 역할, 다섯째, 포용적인 지식 사회의 윤리적 차원 등이다.[15]

반면에 ITU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역할의 연장선 상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ITU는 정부대표로 구성되어 국가 간 협약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각국 정부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ITU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 러시아 등 정부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해와 맞물려 ITU 활용에 대한 의제를 확대해 왔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인터넷 거버넌스를 ITU와 같은 정부 간 기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들 국가들 간에는 정부의 강화된 역할을 주장하는 거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문제는 2003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10] 프랑스가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 브라질, 아랍 국가들, 이란, 남아공,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이 DNS 루트서버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고 국가 단위에서 주도하는 ‘글로벌하게 적용 가능한 공공 정책 원칙’을 주장하였다.[16]

그러나 미국 정부는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ITU는 일국일표주의 원칙에 따라 각종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ITU에는 유럽을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을 견제해 왔다. 예컨대 1980년대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킹 표준을 둘러싼 논쟁에서 미국에 적대적이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로서는 인터넷 거버넌스를 ITU에 맡기지 않고 ICANN이라

는 민간 법인을 만들어 넘긴 것이다.[3]

ICANN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기구로서 핵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1998년 출범한 ICANN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주소 자원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인터넷 초기부터 인터넷 도메인 명칭 시스템 관리는 미국의 IANA가 수행하였다. IANA는 루트 서버에 관한 기술을 결정하고, 국가부호 최상위 도메인 관리자를 결정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IANA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omain Name System, DNS)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루트 파일은 13개의 주요 루트 서버로 관리되는데, 10개가 미국에, 2개가 유럽이, 그리고 1개가 일본에 있다.²⁾

ICANN이 설립되자, 인터넷 도메인 명칭과 주소 시스템 관리 권한이 ICANN으로 이양되었다. ICANN은 어떤 도메인 명칭을 허용할 것인지, 도메인 등록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도메인 명칭 첨가와 삭제에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에 관한 관리 감독, 도메인 명칭 루트 서버 관리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17]

ICANN은 비영리 기구로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민간기구이므로 사장, 직원,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원기구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자문과 협의를 수행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ICANN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져 왔다. 특히 ICANN과 같은 비영리 조직이 책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18] 또한 ICANN이 민간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영향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인터넷 도메인과 주소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구로 기존의 국제 기구(ITU)가 아닌 초국적 법인인 ICANN에 맡긴 것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도메인 등록 사업을 시장중심의 경쟁적인 민간 사업화한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추진으로, 이 역시 미국 인터넷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미국 정부가 인터넷 자원 관리를 민간 영역인 ICANN에 이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터넷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권위를 민간 비영리 법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정부 간 규제 체제를 효율적으로 허물고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계

속 제기되고 있다.[17]

따라서 이러한 ICANN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ICANN을 정부간 국제기구, 예컨대 ITU의 관장 하에 두는 것과 ICANN의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유럽국가들은 ICANN을 국제기구의 관장 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의 공공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 주권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ICANN의 지배구조 개편을 들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직접적인 책임성을 부과하는 여러 가능성과 대안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18] 일반 대중이 ICANN의 과정에 더욱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의 증진을 통해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19]

이렇게 국제기구들 간에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정부간 국제기구로부터 민간 국제기구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정부간 기구 중에서도 유네스코에서 ITU로 이전되는 것은 ICT의 발전을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ICANN과 같은 민간 국제기구 모델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 거버넌스의 공식적인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5. 맺음말

인터넷 거버넌스는 글로벌 정보사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ICT 발전이 기폭제가 되었다. ICT의 발전으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전 세계에 전달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발전은 개방적인 정보 환경을 만들었다. 누구나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의 폭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ICT 발전을 사회 발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추진되었다.

둘째, 글로벌 정보사회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국민국가 단위의 참여가 글로벌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 경제에 미치는 영역에 크게 확대되어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된 것도 이들 기업의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나 사회운동 역시 글로벌

²⁾ VeriSign 이 미국 상무부와의 계약에 따라 이 마스터 파일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한 수준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로 확대된 것이다.

셋째,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종전에 글로벌 정보사회에 대한 논의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은 따라서 정부, 기업, NGO,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diversified actors)들이 관련된 구조를 만들었다.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은 글로벌 정보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되었다.

넷째, 시민사회가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 시민사회가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비록 시민사회의 영향에 대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시민사회는 정부, 민간 조직과 함께 인터넷 거버넌스의 3자 (Tripartite)구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다섯째, 국제기구의 주체가 변화하였다. 종래 국제사회에서 정보 질서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던 기구는 유네스코였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역할은 1980년대 중반 신국제정보질서운동의 여파로 미국, 영국 등이 탈퇴하면서 약화되었다. 이와 함께 ICT의 발전으로 국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을 관장하는 국제통신연맹(ITU)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ITU는 종래 통신의 기술적인 영역을 다루었던 범위를 넘어 ICT가 미치는 전반적인 영역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자연스럽게 유네스코를 대체하게 된다. 더 나아가 유네스코에서 ITU로, 이제는 민간 주도의 새로운 기구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디지털과 정보사회 관점이 증대된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인터넷은 그 정점에 위치해 있다. 인터넷은 지금까지의 어떤 정보수단보다 개방적이고 참여를 촉진해 왔다. 또한 인터넷의 발전은 탈중심적이고 다양한 민간 네트워크들의 조합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특성에 걸맞게 인터넷 거버넌스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1] Hyun-Seok Yu, "State and Global Civil Society in Global Governance." *KPSA Journal*, Vol.39, No.3, 2005, pp.331-352.
 [2] Dingwerth, K. & Pattberg, P., "Global Governance on a Perspective on World Politics." *Global Governance*, Vol.12, 2006, pp.185-203.

[3] Mueller, M., Mathiason, J., and Klein, H., "The Internet and Global Governance: Principles and Norms for a New Regime." *Global Governance*, Vol.13, 2007, pp.237-254.
 [4] Mueller, M. & Schmidt, A., "Internet Security and Networked Govern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15, 2013, pp.86-104.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misr.12024/abstract>
 [5] ITU "Why a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http://www.itu.int/wsis/basic/why.html> (Retrieved on December 6, 2013), 2003.
 [6] Bertrand, L.C., "Multistakeholder Governance Principles and Challenges of an Innovative Political Paradigm." In Kleinwachter, W.(ed.), *Internet Policy Making*, Internet & Society Co., Berlin, 2011.
 [7] Valaskakis, K., "The Case for global governance."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Vol.77, 2012, pp.1595-1598.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1497800_The_case_for_global_governance
 [8] WSIS, "Tunis Agenda for the Information Society." <http://www.itu.int/wsis/docs2/tunis/off/6rev1.pdf>. (Retrieved on April 10, 2014), 2005.
 [9] DeNardis, L. & Raymond, M., "Thinking Clearly about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paper presented at eighth annual GigaNet Symposium, Bali, Indonesia, 2013.
 [10] Kummer, M., "The Debate on Internet Governance: From Geneva to Tunis and Beyond." *Information Polity*, Vol.12, 2007, pp.5-13.
 [11] Jihwan Park, "The meaning of IGF in the context of global governance model"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ol.14, No.3, 2013, pp.58-67.
 [12] O'siochru, S.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the WSIS Process: Promises and Reality." *Continuum: Journal of Media and Cultural Studies*, Vol.18, No.3, 2004, pp.330-344.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030431042000256090?journalCode=ccon20>
 [13] United Nations, "On NGO Participation in the UN System." Report A-53/170, 1998.
 [14] Raboy, M., "The WSIS as a Political Space in Global Governance Forum." *Continuum: Journal of Media and*

- Cultural Studies, Vol.18, No.3, 2004, pp.345-359.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1030431042000256108>
- [15] UNESCO, "Building inclusive Knowledge Societies: A review of UNESCO's action in implementing the WSIS outcomes."
http://www.itu.int/wsis/review/inc/docs/ralfreports/WSIS10_ALF_Reporting-UNESCO.pdf. (Retrieved on May 1, 2014), 2014.
- [16] Mueller, M, "Threats of ITU WCIT." Review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Vol.14, No.4, 2013, pp.5-23.
- [17] Hang-woo, Lee, "Globalization, Internet Governance, and ICANN." Economy and Society, Vol.82, 2009, 128-160.
- [18] Lenard, T. & White, L., "Improving ICANN's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A policy proposal."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Vol.23, 2011, pp.189-199.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0205493_Improving_ICANN's_governance_and_accountability_A_policy_proposal
- [19] Mueller, M, "ICANN, Inc.: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in the governance of critical Internet resources."
<http://www.internetgovernance.org/pdf/ICANNInc.pdf>. (Retrieved on December 10, 2013), 2009.

● 저 자 소 개 ●



김 대 호 (Daeho Kim)

1984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학사)
198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석사)
1994년 영국 버밍엄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언론문화학박사)
1994년~1996년 방송위원회 선임연구원
1996년~199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99년~현재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ICT거버넌스, 뉴미디어, 혁신거버넌스
E-mail : jinseon@inha.ac.kr